‘노르웨이 학교교육, 사회성 중시’

“교과서를 통해 암기하는 교육방식보다 사회 참여로 성숙해지는 인간관계 강조”

도의회 교육위, 국외정책 연수… 첫 일정으로 노르웨이 교육방식 강연 청취

지난 20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국외정책연수를 떠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착 첫날 첫 일정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한나 플루드(25, President of ANSA 2018)는 “노르웨이 교육방식의 글로벌 경쟁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시간 동안 강연과 함께 교육위 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학교교육은 독립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를 통해 암기하는 교육방식보다 사회참여를 통해 성숙해지는 인간관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국가적 특성상 최근 해외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인은 해외 유학생들의 대표로서 국가의 해외유학정책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최영규 위원장)와 노르웨이의 경우 대학까지 무상교육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해외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배경(진형석 의원),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무상교육이지만 방과후수업이나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학부모 부담정도(김희수 의원) 등 장시간 비행에도 아랑곳 않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강연자로 나선 한나 플루드 위원장이 속한 ANSA(Association of Norwegian Students Abroad)는 노르웨이 교육부 산하 자율기구로 노르웨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해외로 유학하는 자국민을 지원하는 기구로 해외유학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김진성 기자

‘은퇴 후 40년 전북에서 삽시다’

박주현 국회의원 등 26일 평화당 200만 프로젝트 토론회

실버시티 조성을 통한 전북 지역의 인구유입 및 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평화당 주최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정동영, 김광수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은퇴 후 40년, 전북에서 삽시다!! 민주평화당 전라북도 인구 200만 프로젝트’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는 김미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와 심우정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신진철 전주시 노인회 부지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박주현 의원은 “호남의 인구는 한때 전 국민의 25%를 차지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 줄어 현재는 전국민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치력 약화와 경제력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의 인구를 확대하고 전북 출신 출향민들의 은퇴 이후 삶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장년층을 대상으로 연어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북의 실버시티 조성을 통한 전북지역의 인구유입 방안과 실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민주, ‘민생입법처리단’ 가동

“야당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

경제활력 등 5대 분야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입법처리단’을 꾸리고 본격 가동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차 민생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기업을 위한 경제활력법안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신사업 법안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법 및 서민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노후 수도관, 통신구 화재 예방 등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법안을 점검 및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한정애, 박완주, 유동수, 송기헌, 맹성규, 고용진, 김병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원내대표는 “추진단에서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인 승부처로 만들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불과 두세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법들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초정 오찬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갈등 있더라도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함께 해야”

문 대통령, 자유총연맹 초청 오찬 모두발언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표적인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진 앞에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 전통을 지키며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과 변화와 혁신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땀이 대한민국 역사에 함께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 했다”며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사회, 강한 안보와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켜냈다”며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우리는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찾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함께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보수단체만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행사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다녀온 북유럽 순방을 언급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함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 있었다”며 “대한민국도 못지않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에 이르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민주공화정을 세웠다”고 치켜세웠다.

또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며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촛불을 들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새겨진 가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나라와 이웃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뤘다”며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든 역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여정에 한국자유총연맹도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부탁했다. /뉴시스

靑, 신임 정책실장 김상조 경제수석에 이호승 임명

김상조, 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서 정책 책임자로

이호승, 경제관료 출신… 6개월만에 기재부서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 신임 실장은 문 정부 출범 때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맡아온 소장파 경제학자다.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학계·시민사회에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신임 수석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앙대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와 전신인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에서 보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뉴시스